
‘우리말 다듬기’ 사이트의 운영 내용 및 성과

박용찬 · 국립국어원 학예연구관

1. 머리말

요즘 세계화 시대니 국제화 시대니 해서 그런지 어디를 가든지 온통 눈에 띄는 것은 외래어 아니면 외국어뿐이다. 우리가 길거리에서 늘 보는 가게 이름이나 상품 이름이 외래어나 외국어로 도배된 지는 이미 오래전이고, 요즘에는 외국어로 된 방송 프로그램의 제목이나 신문 기사의 제목이 비일비재하고 외국어로 된 회사의 이름이 부지기수다.

그에 반하여 우리말은 별로 쓰이지 않아서 아주 초라해 보이기까지 한다. 언제부턴가 우리의 언어생활에서 주객(主客)이 뒤바뀌어 우리말이 외래어나 외국어에 안방을 내주고 뒷방마누라 신세가 된 느낌이다. 국제 교류가 잦아지고 외국 문물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들어오니 몇몇 외국어를 받아들여 쓰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말에 비해 외국어를 더 선호하여 함부로 쓰는 것은 좀 지나치

다는 생각이 든다.

외국어(특히, 영어)를 많이 쓸수록 그만큼 남보다 더 대접받던 시절도 있었다. 외국어를 많이 아는 것이 배운 티가 나서 더 잘나 보이거나 품위 있는 것과 동일시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외국어 좀 안다고 대접받거나 우러러보이는 시대가 아니다. 예를 들어 ‘답글’, ‘댓글’, ‘덧글’이라 할 때보다 ‘리플’이라 하면 더 잘나 보이고 ‘휴대 전화’나 ‘손전화’라 할 때보다 ‘핸드폰’이라 하면 더 품위 있어 보이겠는가? 사실 ‘리플’, ‘핸드폰’은 진짜 영어도 아니다. 이들은 한국식 영어로 가짜 영어일 뿐이다.

국립국어원은 이렇게 차별없이 쓰이는 외래어와 외국어를 걸러 내고, 우리말을 더 다듬어 가꾸기 위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말 다듬기’ 운동을 펼치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2004년 7월 5일부터 동아일보, 동아닷컴, 케이티(KT)문화재단 등과 함께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www.malteo.net)’ 사이트를 마련하여 누구나 낯선 외래어나 외국어를 대신할 우리말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립국어원이 매주 다듬어 써야 할 외래어와 외국어를 하나씩 선정하여 발표하면 일반 국민이 이 사이트를 통하여 그런 외래어나 외국어를 대신할 우리말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이렇게 일반 국민이 제안한 말 가운데 몇몇을 간추려서 그것을 후보로 삼아 다시 투표를 벌이는데 이 투표에서 가장 많이 지지를 받은 말이 다듬은 말로 최종 선정되는 과정을 거쳤다.

예를 들어, 국립국어원이 다듬어 써야 할 외래어로 ‘스크린 도어(screen door)’를 선정하여 발표한다. 그러면 일반 국민은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www.malteo.net)’ 사이트를 통하여 ‘스크린 도어’를 대신할 우리말로 ‘안전문’, ‘살피문’, ‘울타리문’, ‘차단문’, ‘안전담’, ‘안전울’, ‘그느름문’, ‘안전덧문’, ‘방패문’, ‘보호문’, ‘안심나들문’, ‘안전미닫이’ 등 여럿을 자유롭게 제안한다. 국립국어원은 이러한 여러 제안 가운데 ‘안전문’, ‘살피문’, ‘울타리문’, ‘차단문’, ‘안전담’, ‘안전울’ 등 몇몇 훌륭한 제안을 간추리고 이들을 후보로 삼아 다시 투표를 벌인다. 만일 이 투표에서 일반 국민이 ‘스크린 도어(screen

door)’를 대신할 우리말로 ‘안전문’을 가장 많이 지지하면 ‘안전문’이 ‘스크린 도어’의 다듬은 말로 최종적으로 선정되는 과정을 거쳤다.

2. ‘우리말 다듬기’ 사이트의 운영 결과

2004년 7월 5일부터 2005년 3월 30일까지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 사이트(www.malteo.net)를 통하여 일반 국민이 직접 다듬은 말은 총 34개로 ‘다듬을 말’(순화 대상어)과 ‘다듬은 말’(순화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번호	다듬을 말	뜻	다듬은 말
1	웰빙 (well-being)	몸과 마음의 안녕과 행복. 또는 그것을 추구하는 일.	참살이
2	스크린 도어 (screen door)	기차나 지하철을 타는 사람이 차길에 떨어지거나, 열차와 타는 곳 사이에 발이 끼는 따위의 사고를 막기 위해서 설치하는 문.	안전문
3	스팸 메일 (spam mail)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널리 알리기 위하 여 많은 사람들에게 마구잡이로 보내는 전자 우편.	쓰레기편지
4	이모티콘 (emoticon)	감정이나 모양, 소리 따위를 컴퓨터 자판의 각종 기호와 글자를 그림처럼 조합해서 나타낸 것.	그림말
5	올인 (all-in)	선거나 정책 따위에 앞뒤 가리지 않고 자기 조직 의 모든 힘을 쏟아 붓는 일.	다걸기
6	콘텐츠 (contents)	각종 디지털 정보나 자료를 통틀어 가리키는 말.	꾸림정보
7	파이팅 (fighting)	주로 응원하거나 격려할 때 쓰는 말.	아자
8	네티즌 (netizen)	인터넷(누리그물)을 이용하는 사람.	누리꾼
9	무빙 워크 (moving walk)	평지나 약간 비탈진 곳의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사람이 이동할 수 있게끔 자동으로 움직이는 길 모 양의 기계 장치.	자동길
10	슬로푸드 (slow food)	천천히 먹는 음식. 또는 만들어서 먹는 데 많은 시 간이 걸리는 음식.	여유식

11	뱅크위랏스 (bancassurance)	은행에서 보험사와 연계하여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일.	은행연계보험
12	미션 (mission)	목표/목적. 임무/과업/의무. 중요한 일.	중요임무
13	유비쿼터스 (ubiquitous)	어디서나 어떤 기기로나 자유롭게 통신망에 접속하여 갖은 자료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 (환경).	두루누리
14	퀵서비스 (quick service)	물건을 원하는 곳에 빠르게 배달함. 또는 그런 배달. ※'늘찬'은 '능란하고 재빠르다'라는 뜻의 형용사 '늘차다'의 관형형.	늘찬배달
15	로밍 (roaming)	통신 회사끼리 제휴를 맺어 서로의 통신망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여 어느 곳에서도 품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	어울통신
16	컬러링 (color ring)	통화 대기음이나 통화 연결음을 기존의 단순한 기계음 대신 음악이나 음향 효과음으로 바꾸는 일. 또는 그런 음악이나 음향 효과음.	멋울림
17	포스트잇 (Post-it)	한쪽 끝의 뒷면에 접착제가 붙어 있어 종이나 벽에 쉽게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도록 만든 조그마한 종이쪽.	붙임쪽지
18	코드프리 (codefree)	디브이디(DVD) 플레이어에 설정해 놓은 코드를 해제하여 전 세계 어느 지역에서 만들어진 디브이디라도 모두 재생할 수 있도록 하는 일.	빗장풀기
19	클린 센터 (clean center)	공직·공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았을 때 공무원이 직접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곳으로 국가 기관이나 지방 자치 단체의 내부 조직.	청백리마당
20	내비게이션 (navigation)	지도를 보이거나 지름길을 찾아 주어 자동차 운전자를 도와주는 장치나 프로그램.	길도우미
21	하이브리드 (hybrid)	서로 다른 두 가지가 섞여 있음. 또는 그런 물건.	어우름
22	블로그 (blog)	개인이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자유롭게 글을 올릴 수 있는 웹 사이트.	누리사랑방
23	드라이브 (drive)	어느 한 방향으로 무리하게 힘이나 세력을 끌고 가거나 집중하는 일.	몰아가기
24	스타일리스트 (stylist)	옷이나 실내 장식 따위와 관련된 일에 조언을 하거나 지도하는 사람.	맵시가꿈이
25	파파라치 (paparazzi)	불법 사실을 캐내어 보상금을 타 내는 사람.	몰래제보꾼

26	그린 프리미엄 (green premium)	녹지대가 많아 공기가 맑을 뿐만 아니라 조망권·일조권이 충분히 확보되는 데 따라 본래의 아파트 값에 덧붙이는 값. ※'덧두리'는 '정해 놓은 액수 외에 얼마만큼 더 보탬. 또는 그렇게 하는 값'이란 뜻의 고유어.	환경덧두리
27	플리 바게닝 (plea bargaining)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가 자기가 저지른 죄를 스스로 인정하여 고백하는 대가로 검찰이 가볍게 구형하는 일이나 그런 제도.	자백감형제(도)
28	매스티지 (masstige)	'대중[mass]'과 '명품[prestige product]'을 합성하여 새로 만들어 낸 말로 대중적으로 인기가 높은 명품.	대중명품
29	와이브로 (WiBro)	휴대 전화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인터넷을 이용하는 일이나 기술.	휴대누리망
30	노미네이트 (nominate)	어떤 상의 후보자로 지명되는 일.	후보지명
31	마리나 (marina)	해변의 종합 관광 시설	해안유원지
32	커플 매니저 (couple manager)	결혼 정보 회사에 소속되어 서로 어울릴 만한 남녀를 소개하여 결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새들이'는 '①물건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사이에 흥정을 붙이다. ②혼인을 중매하다.'라는 뜻의 동사 '새들다'에서 만든 말.	새들이
33	박스 오피스 (box office)	영화나 연극 따위에서 흥행 수익을 이르는 말.	흥행수익
34	빅 리그 (big league)	프로 축구나 프로 야구 따위에서 가장 높은 위치나 등급에 속하는 리그.	최상위연맹

3. 우리말 다듬기의 의의(意義)

3.1. 우리말 다듬기¹⁾의 개념

우리나라의 국어 순화 정책에서 '순화'란 우리말 속에 있는 잡스러운 말을 없애서 우리말의 순수성을 회복하는 것이나, 복잡하고 난해한 말을 단순하고 쉽게 하는 것이었다. 즉, 국어 순화라 하면 '순수 우리

1) '우리말 다듬기'란 전통적으로 써 온 '국어 순화'를 달리 이르는 말이다.

말 쓰기'나 '쉬운 우리말 쓰기'를 뜻하는 것(그중에서도 전자에 더 중점을 두었음)으로 보아 왔다.) 서양식 외래어·외국어, 일본어 투 용어를 '순 우리말'(토박이말, 고유어)로 바꾸는 일은 '순수 우리말 쓰기'에 해당하고, 어려운 서양식 외래어·외국어를 포함하여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우리말(이에는 고유어, 쉬운 한자어도 포함됨)로 바꾸는 일은 '쉬운 우리말 쓰기'에 해당한다.

우리말에서 '순화'는 상황에 따라 한자어 '純化'를 가리키기도 하고 '醇化'를 가리키기도 한다. 다른 한자어이지만 둘 다 '잡스러운 것을 걸러서 순수하게 함'을 뜻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국어나 언어와 호응하여 쓰일 때에는 '純化'보다는 '醇化'가 더 널리 쓰인다. '국어 순화(國語醇化)', '언어 순화(言語醇化)'란 말이 처음 쓰이기 시작한 것은 광복 직후이다.)

광복 직후 '순화(醇化)'는 '정화(淨化)'의 대체어에 지나지 않은 말로 당시에는 '순화(醇化)'보다는 '정화(淨化)'가 더 널리 쓰였다.) 그러한 사정은 1970년대 초반까지 이어진다. 그러다가 1973년 '국어 순화 운동 전국 연합회(회장 고헥경, 서울여대 학장)'가 창립되고 1976년 문교부 장관의 지문 기관인 '국어 심의회'에 '국어 순화 분과 위원회'가 신설되면서 '정화(淨化)'보다는 '순화(醇化)'가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쓰이게 되었다.

그런데 '순화'라는 용어를 쓰든 '정화'라는 용어를 쓰든 이들은 모두 '순수 우리말 쓰기'와만 관련되는 듯이 보인다. 즉, '순화'나 '정화'

2) 민현식(2003)은 '국어 순화'의 개념을 '우리말 쓰기', '바른 말 쓰기', '쉬운 말 쓰기', '고운 말 쓰기' 등 크게 네 방향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보았다.

3) 1938년에 간행된 문세영의 "조선어사전", 1957년 간행된 한글학회의 "큰사전"에도 '醇化'가 표제어로 올라 있는 사실을 고려할 때 '순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쓰인 말로 봐야 한다. 그러나 이 두 사전에서는 모두 '철학' 분야의 전문어로 처리하고 있어서 '국어 순화(國語醇化)', '언어 순화(言語醇化)' 따위처럼 '국어'나 '언어'와 관련해서는 쓰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4) 당시 '국어 순화'의 주된 관심사는 '일제 잔재 언어(일본어 투 용어)'의 순화였다. 그런 면에서 보면 '순화'보다 '정화'가 선호되어 더 널리 쓰인 사실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정화'가 '순화'에 비해 윤리적인 면이 더 강조되는 말로 보이기 때문이다. 엄격하게 구분되는 건 아니지만 '순화'와 '정화'는 각각 영어의 'refinement'와 'purification'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는 우리가 지금까지 ‘국어 순화’라 하여 가리켜 왔던 ‘순수 우리말 쓰기’나 ‘쉬운 우리말 쓰기’ 가운데 전자만을 가리킬 소지가 있는 부적절한 말이다. 이는 불가피하게 ‘국어 순화’가 서양식 외래어·외국어와 일본어 투 용어를 우리말로 바꾸는 일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오해를 낳았다. 게다가 1970년대 중반 이후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쓰이게 된 ‘순화’는 아직도 여전히 일반인에게 생소하기만 한 말이다. 그런 점에서 1973년 창립된 ‘국어 순화 운동 전국 연합회’가 1975년 ‘우리말 다듬기회’로 이름을 바꾸어서 사용한 사실은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

‘우리말 다듬기’는 ‘순화’나 ‘정화’와 달리 ‘순수 우리말 쓰기’나 ‘쉬운 우리말 쓰기’를 두루 포괄할 수 있는 말이다. 즉, ‘우리말 다듬기’는 서양식 외래어·외국어, 일본어 투 용어를 우리말로 바꾸고, 어려운 말을 쉬운 말로 바꾸는 일을 모두 가리킬 수 있는 말이다. 게다가 ‘우리말 다듬기’는 삼척동자라도 그 의미를 대강 짐작할 수 있는 쉬운 우리말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국립국어원에서는 ‘국어 순화’ 사이트의 이름으로 ‘우리말 다듬기’란 용어를 쓰기로 하였다.

3.2. 우리말 다듬기의 목적

지금까지 정부에서 추진한 우리말 다듬기 정책은 지나칠 정도로 우리말의 순수성을 지키는 일, 즉 ‘순수 우리말 쓰기’에 치우쳐 있었다. 광복 직후 ‘국어 정화(國語淨化)’라 하여 대대적으로 일제 잔재 용어(일본어 투 용어)를 순수 우리말로 바꾼 일은 이해가 되고도 남는다.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된 일제 잔재 용어는 한국어와 일본어 간의 정상적인 언어 접촉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유입된 것이 아니라 일본에 의해 일방적, 강제적으로 유입된 말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우리말 다듬기 정책이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일과 같은 ‘쉬운 우리말 쓰기’를 완전히 도외시한 것은 아닐지라도 ‘순수 우리말 쓰기’에 경도된 것은 사실이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광복 직후 일본어

투 용어에 대한 ‘정화(淨化)’ 차원의 ‘순수 우리말 쓰기’가 상당한 실효를 거둘 수 있었다. 현재 프랑스에서 자국어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하여 펴고 있는 순화(purification, refinement) 정책도 ‘순수 자국어 쓰기’에 가깝다.

최근 들어 일본에서도 순화 정책[외래어 (말) 바꾸기, Paraphrase of Loanwords]을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어 우리의 관심을 끈다. 일본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양식 외래어·외국어의 차용에 관한 한 거의 방치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런데 2003년부터 일본 국립국어연구소에서 서양식 외래어·외국어를 순수 일본어나 한자어로 바꾸고 있다.⁵⁾ 그러나 일본의 순화 정책은 ‘순수 자국어 쓰기’와 거리가 멀다. 일본은 일반 국민(특히, 60세 이상의 노인)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외래어를 선별해 순수 일본어나 한자어로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언어의 공공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쉬운 말 쓰기’에 해당한다.

앞으로 우리말 다듬기 정책에서는 우선적으로 ‘순수 우리말 쓰기’를 지향할 것인지 아니면 ‘쉬운 우리말 쓰기’를 지향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 방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지금까지처럼 ‘순수 우리말 쓰기’에 경도된 방향은 곤란하다. 일본어 투 용어를 중심으로 한 ‘우리말 다듬기(국어 순화)’가 어느 정도 일단락된 요즘의 현실을 고려하면 더더욱 그러하다.

우리말 다듬기와 관련된 기본 방향의 재정립은 다듬을 말(순화 대상어)의 선정, 다듬은 말(순화어) 결정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특히, 한자어와 관련해서 그러하다. 만일 지금까지처럼 ‘순수 우리말 쓰기’가 주된 입장이라면 다듬을 말을 선정하는 데 상당수의 한자어를 포함하여야 하고, 다듬은 말을 결정하는 데 되도록 한자어는 배제하여야 한다. 반면 지금까지와 달리 ‘쉬운 우리말 쓰기’가 주된 입장이라면 다듬을 말을 선정하는 데 최소한의 한자어만 포함하도록 하고 다듬은 말을 결정하는 데 일상 언어생활에 널리 쓰이는 한자어를 자유롭게 포함하여야 한다.

5) 2003년 두 차례에 걸쳐 총 109 단어를 다듬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한자어 문제는 너무나 민감한 주제에 속한다. 우선 많은 사람들이 한자와 한자어 문제를 동일시하는 오류에 빠져 있다. 한자어를 쓰는 일을 문자로서의 한자를 쓰는 일로 착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한자어 사용 문제에 대하여 정반대의 생각을 가진 두 부류의 사람들이 극한 대치의 형국을 이루고 있다. 즉, 어떤 사람들은 우리 말글살이를 훼손하는 주범으로 한자어를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데 반해 또 어떤 사람들은 한자어는 오랫동안 우리 언어생활의 한 축을 담당해 온 소중한 언어 문화 유산으로 널리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한자어 문제에 대한 극한 대립은 일반 국민에게 한자어가 우리말 다듬기의 주된 대상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게끔 하는 잘못된 결과를 낳았다. 즉, 한자어 사용에 관련된 지나친 관심이 우리말 다듬기 및 다듬을 대상에 대한 중요한 초점을 흐리게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말 다듬기의 입장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서양식 외래어나 외국어의 남용이다. 다량으로 무분별하게 쓰이는 서양식 외래어와 외국어는 우리말의 본래 자리마저 빼앗아 갔다. 게다가 최근 들어 서양식 외래어와 외국어의 남용은 친구 세대 간에 의사소통의 단절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쉬운 우리말 쓰기’ 차원에서 서양식 외래어나 외국어를 우리말로 다듬어 쓰는 일이 더욱 필요해졌다. 그런 점에서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일상 언어생활에서 함부로 쓰이고 있는 서양식 외래어나 외국어를 대상으로 하여 우리말로 다듬는 일을 제1차 목적으로 삼고 있다.

3.3. 우리말 다듬기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우리말 다듬기 정책은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모두 다 우리말 다듬기의 필요성을 인정할 것(구체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더라도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봄)이라고 보는 데서 출발한다.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이 일제 잔재 언어의 청산으로 시작된 일본어 투 용

어의 다듬기에 대하여 전 국민이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 준 것처럼 서양식 외래어나 외국어의 다듬기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이 지지해 줄 것이라 기대한다. 그러나 작금의 사정은 그렇지 밝지 못하다. 오히려 최근 들어 서양식 외래어나 외국어(주로 영어)를 다듬을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하는 사람이 크게 늘었다. 국제화, 세계화 시대에 서양식 외래어·외국어를 다량으로 널리 쓰면 쓸수록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들은 저절로 서양식 외국어를 익히도록 서양식 외래어나 외국어를 일상 언어생활에서 많이 그리고 빈번히 쓰는 일이 더없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우리말 다듬기 정책에서는 우리말의 순수성이나 순정성을 추구한 나머지 웬만한 외래어·외국어는 다 우리말로 바꿔 쓰려 하였다. 심지어 우리말로 완전히 정착한 외래어까지도 우리말로 바꾸려 하였다(아직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극단적인 우리말 다듬기에 대하여 반발하고 있다. 더 나아가 외래어·외국어 다듬기의 불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도 생겨나게 되었다. ‘순수 우리말 쓰기’를 지향하는 쪽에서 우리말 다듬기라 하여 지금껏 아무 불편 없이 써 오고 있는 말까지도 생소한 다른 말로 바꿔 쓰라고 하니, 또 다른 한쪽에서는 그럴 바엔 차라리 모든 외래어·외국어를 그냥 쓰게 내버려 두기를 바라는 심리까지 생기게 된 것이다.

언어 차용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언어 현상의 하나이다. 외국과의 교류가 빈번해진 현대 사회의 특성을 고려하면 외래어·외국어의 사용은 더더욱 불가피하다. 외국과의 교류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소개되는 사물이나 개념을 가리키는 말은 모두 외국어이기에 그것을 우리말(고유어나 한자어)로 바꿔 쓰지 않는 한 외국어에서 그대로 빌려 쓰는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최전선에서 분초를 다투어 외국과 교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외국어·외래어를 적절한 우리말로 다듬어 쓰는 일이 감당하기엔 너무나 버거운 일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우리말에서 서양식 외래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10%를 넘지 않는다. “표준국어대사전”(1999년 국립국어연구원 간행)에 실려 있는 총

440,594개의 주표제어에서 서양식 외래어는 총 24,019개로 전체의 5.4%를 차지하며 서양식 외래어가 일부 포함된 것까지 포함하면 총 40,542개로 전체의 9.2%를 차지한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부표제어 68,482개를 포함하여 총 509,076개의 표제어가 실려 있다. 그리고 순수 서양식 외래어 24,019개 가운데 21,492개(순수 서양식 외래어의 89.5%)가 영어에서 들어온 말이다.⁶⁾ 서양식 외래어 가운데 열에 아홉은 영어와 관련되는 말인 셈이다.

어종 구분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고유어+ 한자어	고유어+ 외래어	한자어+ 외래어	고유어+한 자어+외래 어
표제어 수 (440,594)	111,156	252,278	24,019	36,618	1,323	14,480	720
백분율 (100%)	25.2	57.3	5.4	8.3	0.3	3.3	0.2

그런데 새로이 생성되어 쓰이는 말(신어)에서 서양식 외래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전보다 훨씬 더 높아졌다. 국립국어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2년 신어(408개), 2003년 신어(656개), 2004년 신어(626개) 가운데 서양식 외래어는 총 608개로 37.0%를 차지하며 서양식 외래어가 일부 포함된 것까지 포함하면 총 974개로 전체의 57.6%를 차지한다. 그리고 여전히 이런 서양식 외래어 가운데 열에 아홉은 영어와 관련된다. 앞으로 이러한 상황은 훨씬 더 심화되어 몇백 년 뒤에는 우리말에서 순수 고유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서양식 외래어보다도 더 작아질지 모른다.

그런 면에서 외래어 다듬기의 필요성에 대한 전 국민적인 합의 절차가 필요하다. 그런 합의 절차 없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말 다듬기에 대한 이야기는 일방적인 ‘쇠귀에 경 읽기’나 ‘공염불(空念佛)’에

6) 이는 국립국어연구원(2002년)을 따른 것이다.

지나지 않게 된다.

4. 우리말 다듬기의 방법

4.1 새로운 방법의 우리말 다듬기

우리나라 정부는 광복 이후 우리말 다듬기(국어 순화) 운동을 꾸준히 펼쳐 왔다. 1991년 1월 23일 국립국어연구원이 개원한 이래 2003년 말까지 공식적으로 다듬어서 내놓은 말만 해도 2,200여 개를 훌쩍 넘어선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것이 일반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일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도 극히 낮았다. 이는 무엇보다 주로 전문어를 대상으로 우리말 다듬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몇몇 관련 학자 중심으로 ‘다듬을 말(순화 대상어)’을 선정하고 ‘다듬은 말(순화어)’을 마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몇몇 관련 학자 중심으로 우리말 다듬기가 이루어지다 보니 전방위적인 ‘다듬을 말’ 선정도 불가능했고 일반 국민의 언어 의식과 합치되는 ‘다듬은 말’도 마련하지 못했다. 전방위적인 다듬을 말 선정이 불가능하니 다듬어 쓸 시기를 놓치기 일쑤였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에게 우리말 다듬기는 항상 뒷북치는 일쯤으로 보이게 만들었다. 그리고 피드백(feedback, 수용자 반응에 대한 성찰과 이에 수반된 조정 작용) 없이 다량으로 마련하여 일방적으로 보급되는 다듬은 말은 아주 경직된 것일 수밖에 없었다. 즉, 우리말 어법, 의미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이루어지는 우리말 다듬기는 ‘코너킥(corner kick)’의 다듬은 말로 ‘구석차기’, ‘모서리차기’ 말고 다른 말을 기대할 수 없었다.

이렇게 지금까지 몇몇 관련 학자 중심으로 이루어진 폐쇄적인 우리말 다듬기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립국어원은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 사이트를 마련하여 우리말 다듬기에 일반 국민을 직접 참여시키기로 하였다. 이는 또한 우리말 다듬기의 방식을 ‘정부나 전문가 집단 주도(위에서 아래로)’의 하향적, 일방적, 타율적인 방식에서 ‘일반 국민 참여(아래에서 위로)’의 상향적, 쌍방향적, 자율적인 방

식으로 바꾼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일반 국민을 참여시키는 방식은 다듬은 말을 자연스럽게 널리 홍보할 수 있는 효과도 부수적으로 거둘 수 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지나치게 대중주의에 치우친 것이라고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이런 시각을 갖는 사람들은 언어에 관한 전문 지식이 전혀 없는 일반 국민에게 우리말 다듬기를 전적으로 내맡기는 것은 앞으로 커다란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즉, 우리의 언어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리말을 다듬어 쓰는 일과 같은 민감한 문제를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 국민이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득(得)’보다 ‘실(失)’이 더 많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우리말 다듬기에서 일반 국민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잘못이다. 우리 언어생활의 주역이 일반 국민이라면 우리말을 다듬어 쓰는 데서 제 입맛에 맞는 ‘다듬은 말’(순화어)을 결정할 권리가 일반 국민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올바른 시각일 것이다. 제 입맛에 맞지도 않는 ‘다듬은 말’을 억지로 쓰도록 하는 건 지나친 강권(強勸)이다. 우리말 다듬기란 궁극적으로 언어 의식의 변화를 목표로 한다. 즉, 우리말 다듬기는 우리말을 경시하고 외래어·외국어를 중시하는 일반 국민의 언어 의식을 변화시키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도 지금까지의 타율적인 방식보다는 일반 국민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자율적인 방식이 훨씬 바람직하다.

그리고 우리말 다듬기에 신세대를 적극적으로 동참시킬 필요가 있다. 앞으로의 언어생활의 주역은 바로 신세대이기 때문이다. 신세대의

어종 구분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고유어+ 한자어	고유어+ 외래어	한자어+ 외래어	고유어+한자 어+외래어
신어 수 (1,690)	78	443	608	195	77	276	13
백분율 (100%)	4.6	26.2	37.0	11.5	4.6	16.3	0.8

언어 의식이 어떠한지에 따라 우리의 언어생활은 앞으로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최근 인터넷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신세대의 언어가 기성세대의 커다란 근심거리로 등장했다. 이와 관련된 적절한 대안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런데 신세대의 언어 모두가 문젯거리가 되고 있는 건 아니다. 신세대 언어의 일부는 기성세대의 언어와 비교해 볼 때 우리말 다듬기에 여러 가지 시사점을 던져 준다. 특히, ‘하이루7)’, ‘알바(아르바이트의 줄임말)’, ‘길치(길눈 어두운 사람)/똥치(춤을 잘 못 추는 사람)’, ‘꽃미남8)’, ‘번개9)’, ‘강퇴(강제 퇴장)’, ‘허걱10)’, ‘헐11)’, ‘즐12)’, ‘악플13)’, ‘아햏햏14)’ 따위와 같은 신조어 가운데 몇몇은 재기가 넘치는 말로서 다듬은 말을 마련하는 데 응용해 볼 적하다. 왜냐하면 다듬은 말을 마련하는 일은 신조어를 만드는 일과 깊은 관련성을 갖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재기 넘치는 신조어를 만들어 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신세대를 건전하고도 적절하게 우리말 다듬기 쪽으로 유도할 수만 있다면 일반 국민의 언어 의식과 합치되는 다듬은 말을 마련하는 데에 새로운 돌파구가 열릴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국립국어원은 일반 국민 가운데 특히, 신세대를 우리말 다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하여 인터넷상에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
- 7) 하이루(←hi+hello): 인터넷상에서, 처음 만날 때 하는 인사말.
 - 8) 꽃미남(美男): 나이가 어리면서 얼굴이 예쁘장하게 생긴 남자.
 - 9) 번개: 인터넷상에서, 갑자기 약속을 정하여 만나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10) 허걱: 인터넷상에서, 뜻밖의 상황에 처하여 아주 놀랄 때 내는 소리. 또는 그 모양.
 - 11) 헐: 인터넷상에서, 뜻밖의 상황에 처하여 놀랄 때 내는 소리.
 - 12) 즐: ‘즐겁다’ 또는 ‘즐거다’에서 따온 말로 다른 사람을 따돌릴 때 내는 소리. “너 나 즐겁게 하던 일 해라” 또는 “너 혼자 즐겨라”라는 의미에서 출발하여 “(대화방에서) 어서 떠나라.”라는 뜻으로 쓰는 말.
 - 13) 악플(←惡+reply): 다른 사람이 올린 글에 대하여 비방하거나 헐뜯는 내용을 담아서 올린 댓글.
 - 14) 아햏햏: 인터넷상에서, 기분이 좋거나 황당하고 어리둥절할 때 느끼는 기운이나 감정을 대신하여 이르는 말.

4.2. 다듬은 말(순화 대상어) 선정

우리나라의 우리말 다듬기 정책은 광복 이후 줄곧 여러 전문 분야에 걸쳐 다듬은 말을 마련하여 제공해 주는 데 급급하였다. 그리하여 어떤 원리로 다듬은 말을 선정하고, 어떤 방식으로 다듬은 말을 마련할지에 대해서는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 그 결과 다듬은 말 대부분은 일반 국민에게 채 보급되지 못하고 국어사전 속에 사장되어 있다시피 되었다. 앞으로 다듬은 말을 적절하게 선정하고 다듬은 말을 제대로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우리말 다듬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듬은 말부터 적절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지금까지의 ‘우리말 다듬기’ 정책은 ‘순수 우리말’이 아니거나(즉, 일본어 투 용어나 외래어·외국어) ‘쉬운 우리말’이 아닌 말(즉, 어려운 한자어)을 순수하고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순수 우리말 쓰기’와 ‘쉬운 우리말 쓰기’에 치우쳐 있었다. 그러나 ‘우리말 다듬기(국어 순화)’는 그 범위를 넓게 잡으면 ‘순수 우리말 쓰기’, ‘쉬운 말 쓰기’뿐만 아니라 ‘바른 우리말 쓰기’, ‘고운 우리말 쓰기’까지도 포함된다. ‘바른 우리말 쓰기’는 규범(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관련)이나 어법에 맞지 않은 말이나 표현을 바르게 고치는 일이고, ‘고운 우리말 쓰기’는 비속한 말이나 표현을 우아하고 아름다운 말로 고치는 일이다.

예를 들어 일본식 발음의 서양식 외래어인 ‘쓰레빠(slipper)’·‘사라다(salad)’ 따위를 ‘슬리퍼’·‘샐러드’ 따위로 고쳐서 발음하거나 쓰는 일, 영어·일본어·한문 번역 투 문장을 자연스러운 우리말 문장으로 고쳐 쓰는 일은 ‘바른 우리말 쓰기’의 하나에 속한다. 그리고 비어, 속어, 은어, 욕설, 유행어 따위와 같은 비속한 말이나 표현을 우아하고 아름다운 말로 고치는 일은 ‘고운 우리말 쓰기’의 하나에 속한다. ‘식모’, ‘운전사’, ‘장애자’ 따위를 ‘가정부/가사 도우미’, ‘기사(님)’, ‘장애우’ 따위로 바꾸는 일은 비속하지는 않더라도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말이나 표현을 중립적이거나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 말로 바꾸는 일로서 ‘고운 우리말 쓰기’의 하나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말 다듬기의 대상으로는 일본어 투 용어, 외래어·외국어, 어려운 한자어 따위와 같은 어휘가 주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표기, 발음, 문장 따위와 관련된 것도 우리말 다듬기의 대상이 된다. 즉, 규범(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관련)에 어긋난 표기 및 발음, 어법에 맞지 않거나 비속한 표현의 문장 따위와 같은 비어휘적 차원의 것도 우리말 다듬기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오늘날 영어식 외래어·외국어 남용이 커다란 사회 문제 및 언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순수 우리말 쓰기’와 ‘쉬운 우리말 쓰기’ 차원에서 영어식 외래어·외국어를 우리말로 다듬어 쓰는 일이 시급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국립국어원은 일상 언어생활에서 함부로 쓰이고 있는 영어식 외래어·외국어와 같은 어휘를 우리말로 다듬는 일을 비어휘적 차원의 다듬기보다 더 서둘러야 할 대상으로 보고,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를 통하여 주로 영어식 외래어¹⁵⁾·외국어 어휘를 다듬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렇다고 모든 외래어·외국어를 우리말로 다듬어 쓰는 일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적절하지도 않다. 특히, 이미 우리말의 일부로 완전히 정착된 말을 다른 말로 바꾸어 쓰라고 하는 건 오히려 언어생활의 혼란만 가중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외래어·외국어 가운데 다듬을 말을 선정할 때에는 ‘정착도(定着度)’를 적정하게 고려해야 한다. 우선 완전히 우리말의 일부로 굳어져 버린 외래어(정착도가 아주 높은 외래어)는 다듬어 쓸 말의 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 사이트에서는 엄밀한 기준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표준국어대사전”의 등재 여부를 정착도의 기준으로 삼아 다듬을 말을 선정하였다. 예를 들어 ‘네티즌(netizen)’은 “표준국

15) 우리말에 동화되어 우리말의 빈칸을 채워 주어 표현력을 증대해 주는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 외래어는 다듬을 말(순화 대상어)로 삼지 않는다. 그러나 ‘외래어’와 ‘외국어’의 엄밀한 경계선을 긋기가 매우 어려워, 똑같은 말에 대하여 사람에 따라 ‘외래어’로 판정하기도 하고 ‘외국어’로 판정하기도 한다.

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착도가 낮은 외국어로 봐서 다듬을 말로 선정하였다. 지금까지 이 사이트를 통하여 다듬어 쓰기로 한 말은 한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외래어로 보기 어려운 외국어 차원의 것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렇지만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정착도가 낮은 외국어 차원의 말을 모두 우리말 다듬기의 대상으로 삼는 건 곤란하다. 왜냐하면 정착도가 낮은 외국어 차원의 말 가운데 상당수는 임시 차용어(잠시 쓰이다 말 말)인데 이들을 다듬을 말로 선정하여 다듬어 쓰는 일은 자칫하면 일반 국민에게 오히려 이들을 학습시켜 주는 역효과만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는 우리말 다듬기의 적시성(適時性)과도 관련된다. 임시 차용어로 쓰이는 외국어 차원의 단계를 지나 정착도가 어느 정도 높아진 말을 다듬을 말로 선정해야 우리말 다듬기가 커다란 효과를 낼 수 있다. 정착도가 아주 높은 외래어를 다듬을 말로 잘못 선정하여 일반 국민에게 우리말 다듬기가 그야말로 뒷북치는 일쯤으로 보이지 않도록 특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

4.3. 다듬은 말 선정

우리말 다듬기의 성패는 다듬은 말을 제대로 마련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듬은 말을 마련할 때에는 한자어, 신조어, 옛말의 활용 등 여러 문제를 적절하게 고려해야 한다.

과거의 우리말 다듬기에서는 ‘순수 우리말 쓰기’ 차원에서 다듬은 말로 한자어는 되도록 배제하였다. 그러나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에서는 친구 세대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일상 언어생활에서 함부로 쓰이고 있는 서양식 외래어나 외국어를 쉬운 우리말로 다듬는 데에서 한자어를 굳이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순수 우리말 쓰기’ 차원뿐만 아니라 ‘쉬운 우리말 쓰기’ 차원을 고려하여 ‘우리말 다듬기’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사이트에서는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려진 쉬운 한자어는 다듬은 말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길을 터놓기로 하였다. 그 결과 ‘스크린 도어(screen door)’, ‘슬로 푸드(slow food)’, ‘미션(mission)’, ‘박스 오피스(box office)’, ‘빅 리그(big league)’ 따위의 다듬은 말로 ‘안전문(安金門)’, ‘여유식(餘裕食)’, ‘중요 임무(重要任務)’, ‘흥행 수익(興行收益)’, ‘최상위 연맹(最上位聯盟)’ 따위와 같은 한자어가 최종 결정되었다. ‘쓰레기 편지(--便紙)’, ‘꾸림정보(--情報)’, ‘자동길(自動)’ 따위[각각 ‘스팸 메일(spam mail)’, ‘콘텐츠(contents)’, ‘무빙 워크(moving walk) 따위의 다듬은 말]도 다듬은 말의 일부로 한자어가 활용된 예이다.

다듬은 말을 마련하는 데에 문제가 되는 또 다른 것은 신조어이다. 다듬은 말에 대응하는, 바꾸어 쓸 만한 우리말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다듬은 말로 활용하면 된다. 그러나 바꾸어 쓸 만한 말이 없을 때에는 불가피하게 새로 말을 만들어 쓸 수밖에 없다. ‘웰빙(well-being)’, ‘이모티콘(emoji)’, ‘컬러링(color ring)’의 다듬은 말로 결정된 ‘참살이’, ‘그림말’, ‘멋을림’ 따위가 이 사이트를 통하여 새로 만들어 쓰게 된 대표적인 신조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조어를 마구잡이로 만들어 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일반 국민이 크게 저항을 느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신조어를 만들어 써야 한다. 예를 들어 ‘떡거리’처럼 용언 어간에 직접 체언을 결합하여 만들어 낸 신조어는 아직까지 일반 국민에게 크게 저항을 느끼게 하는 축에 속하므로 자제하여야 한다. 반면 ‘두루누리’, ‘몰래제보꾼’[각각 ‘유비쿼터스(ubiquitous)’, ‘파파라치(paparazzi)’의 다듬은 말]처럼 부사에 직접 체언을 결합하여 만들어 낸 신조어는 이전에는 그리 자연스럽지 않았으나 이제는 일반 국민에게 별 저항을 느끼게 하지 않는 축에 속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 봄 직하다.

옛말 활용 여부도 다듬은 말을 마련하는 데에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이다. 옛말은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아주 잊혀 더 이상 쓰이지 않게 된 말이다. 따라서 ‘쉬운 우리말 쓰기’ 차원에서 볼 때엔 옛말 활용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다듬은 말로 바꾸어 쓸 만한 우리말도 따로 없고 신조어를 새로 만들어 쓰기도 쉽지 않은 경우

에는 옛말을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다. 이 사이트에서는 ‘어울통신’ 처럼 ‘어우르다’의 옛말인 ‘어울다’를 활용한 신조어가 ‘로밍(roaming)’의 다듬은 말로 최종 결정된 바 있다. 그러나 아주 낮은 옛말을 활용하는 일은 사람들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어렵게 할 수 있으므로 옛말을 활용하여 다듬은 말을 마련할 때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다듬은 말로 순수 우리말만을 지향하는 자세도 재고(再考)해야 한다. ‘누리꾼’, ‘늘찬배달’, ‘새들이’[각각 ‘네티즌(netizen)’, ‘퀵서비스(quick service)’, ‘커플 매니저(couple manager)’의 다듬은 말] 따위는 각각 ‘누리’, ‘늘차다(능란하고 재빠르다)’, ‘새들다(사이에 들어 혼인을 증대하다)’라는 순수 우리말을 활용하여 다듬은 말을 마련한 예이다. 이렇게 다듬은 말을 마련할 때 순수 우리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나 일반 국민에게 낮은, 이제는 옛말처럼 받아들여지는 순수 우리말을 다듬은 말로 활용하는 건 아주 낮은 옛말처럼 우리말 다듬기에서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하여야 한다.

다듬은 말은 되도록 최선의 것이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최선이 나올 때까지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다. 최선이 아닌 차선의 것일지라도 적절한 시기에 다듬은 말을 대신하여 쓸 수 있도록 다듬은 말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우리말 다듬기란 정답을 맞히는 문제 풀이가 아닌 것이다. 최선의 것만을 찾으며 지체하다가는 수많은 외래어·외국어가 순식간에 우리말의 일부로 정착돼 버릴 것이다. 따라서 최선을 추구하되 때론 차선이지만 적절하게 다듬은 말을 제때에 마련하여 널리 보급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5. 결론

지금까지 우리말 다듬기 정책은 ‘순수 우리말 쓰기’ 그것도 주로 어휘 차원에 한정하여 이루어졌다. 일본어 투 용어나 서양식 외래어·외국어를 순수 우리말로 바꾸는 데에 치중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로 우리말 다듬기는 ‘순수 우리말 쓰기’ 차원이 아닌 ‘쉬운 우리말 쓰기’ 차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말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 국민의 언어생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나치게 어려운 서양식 외래어·외국어를 우리말로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말 다듬기에서는 어떤 원리로 다듬을 말을 선정하고, 어떤 방식으로 다듬은 말을 마련할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다듬을 말을 적정하게 선정하고 다듬은 말을 제대로 마련해야 우리말 다듬기가 크게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어떤 말을 선정하여 어떻게 다듬을 것인지를 두고 너무 오래 재다가 적절한 때를 놓치는 우(愚)를 범해서도 안 되겠다.

우리말 다듬기란 궁극적으로 언어 의식의 변화를 목표로 한다. 즉, 우리말 다듬기는 우리말을 경시하고 서양식 외래어·외국어를 중시하는 일반 국민의 언어 의식을 변화시키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런데 언어 의식의 변화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우리말 다듬기에서는 단기간의 조그만 성과보다는 장기간의 커다란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꾸준하게 노력하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 참고 문헌 |

국립국어연구원(2002 ㄱ), “「표준국어대사전」 연구 분석”, 크리홍보주식회사.

국립국어연구원(2002 ㄴ), “2002년 신어”, 가야원.

국립국어연구원(2003), “국어 순화 정책 연구 보고서”, 성진문화사.

국립국어연구원(2003), “2003년 신어”, 가삼기획.

국립국어연구원(2004), “2004년 신어”, 성진문화사.

김민수(1973), “국어정책론”, 탑출판사.

김석득(1984), ‘국어 순화에 대한 근원적 문제와 해결책’, “국어 순화 교

육”,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교열기자회(편)(1982), “국어 순화의 이론과 실제”, 일지사.